

건축의 방식; 형식; 양식

Method, Form and Style of Architecture

함성호 / Eon건축설계사무실 대표, 건축비평가, 시인
by Ham Sung-Ho

“음(音)은 단지 열 두 개 뿐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파울 힌데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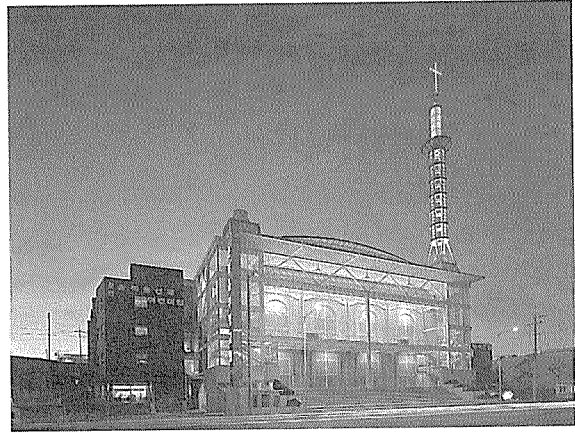
물론 12개의 음만이 세상의 모든 음은 아니다. 그러나 음악의 역사는 그것이 오음이든 칠음이든 간에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니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스스로 어떤 한계를 자체에 노정하면서 가는 것은 비단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평면 회화는 평면이라는 한계와 동시에 그 가능성이 시작되었고, 문학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같이 그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말하자면 “장애속에서 해탈

"There are only 12 tones - One must be extremely careful in treating them."

- Paul Hindemith

Of course, there are more sounds in this world other than these 12 tones. The history of music, however, has started from these limiting articulations, be it 5 or 7 tones. The development of an art medium through the applying one's own confinement does not simply concern the field of music - paintings were both paralyzed and enforced by its own flatness; literature was built upon its restrictions as written letters. In a word, art seeks truth through its own defects. This can be related to our quest for meaning not only in religious terms but in the daily lives.

Then what are we to interpret Hindemith's 'extreme carefulness' in his treatment of musical tones? "12 tones" refer to the confinements of music, but the sentence that immediately follows it connotes a subtle mastering of that restriction. It is a catalyst that converts limitation into a new



부평순복음교회

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구도를 위한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의 비의를 드러내주는 단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같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용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의, “음은 단지 열 두 개 뿐이다”라는 문장은 음악의 한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곧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그 한계를 조심스럽게 극복한다. 그 말은 바로 한계/가능성의 사이에서 한계를 가능성으로 만드는 질적 변환의 촉매로 거론된다. 바로 거기에서 음악의 방식;형식이 나온다. 수와 음의 관계가 밝혀지고, 화성학이 이루어진다.

possibility, in the threshold of these two contrasting states, and at this state, the method and form of music are found. The relation between numbers and tone become disclosed, and harmonics is born.

The renaissance had a similar impact on architecture. That period is actually devoid of any specific styles, but during that era, various layers of structural, material experiments were accumulated and formed a method, form or style of architecture. Arches and vaults finally gave the traditional method of masonry a diversity of architectonic applications, and helped to establish architecture as an independent genre. This coincided with the departure of paintings from architecture. Art, until that point positioned awkwardly between the creator and the patron, gained its own independence by freeing itself from the socioeconomical determinants and recognizing its very own momentum - a heart of its own.

But this point of zenith, as in almost every other case, didn't last long. With the advent of new materials such as steel and glass, architecture once again was entangled within the

서양 건축사에 있어서 르네상스기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그 시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서양 건축사에 있어서 실험되었고, 발명되어졌던 모든 구조와 재료의 방식들이 집대성되어 하나의 방식; 형식; 양식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아치와 볼트는 조적식 구성법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다양한 버전을 완성했고, 그럼으로써 건축은 비로서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화가 건축에서 분리된 때와 그 시기를 같이 한다. 페트론과 예술가 사이에 놓여있던 예술의 독립은 이렇게 사회 경제사를 넘어 예술 자체의 동력에서도 기인한다.

그러나 항상 절정고지의 나날들은 길지 않다. 철과 유리 등의 새로운 재료의 혁신을 맞이한 건축은 다시 한 번 재료의 속성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건축의 방식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근대 이후의 건축은 아직 그 방식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음악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그 한계의 가능성마저 버린 현대 음악의 운명과도 같은 모습이다.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불협화음 속에서 꾸준한 모색이 이루어지듯이, 현대 건축의 운명도 그와 같다. 단지 건축은 음악보다 더 사회 경제적 현상들과 긴밀함으로 그 모색이 더 수동적이라는 것 뿐이다. 건축은 더 적극적으로 전시대의 방식을 청산하지

problems of material and its relation to styles, and even to this day, does not seem to have found the right track. It is quite analogous to the state of contemporary music, who has lost, along with music's own limits, the very potential which those limits provide. Constant explorations are being made through the bottomless dissonance, and likewise,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wandering through unsettled grounds - The only difference is that, since architecture relatively has a strong connection with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t is rather less active in its quests than the other. Architecture didn't, couldn't, or rather didn't feel the need to break away from the classical styles. The chaotic situation of today's architectural scene could be deeply rooted in the medium's bond with materiality. As we have seen in the anecdote of Michelangelo, a material has some sort of will to be that material. We, at this point, should once again boldly face this problem.

Architect Ham In-sun's choice of steel structure as the main material for his recent work - the Bupyung Full Gospel Church - can be viewed in connection to this question. It is well

않았고, 못했으며, 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현대건축이 겪고 있는 이 혼돈은 이러한 건축 예술을 이루고 있는 질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미켈란젤로의 일화가 말해 주듯이 그 재료에는 재료가 되고 싶은 무엇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현대 건축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함인선이 철골을 선택한 이유도 그 질문에 대한 탐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함인선은 철골조를 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달고 다닌다. 그가 보여준 몇몇 작업들과 공식적인 그의 발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작업을 건축계에 짧지 않은 시간에 각인시켰다. 이를테면,

“도시 얘기할 때 건물이 제일 신경써야 되는데 ‘컨텍스트’입니다. 하지만 과연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얘기할 만한 컨텍스트가 과연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예 도시에서의 컨텍스트 자체는 그만 두고라도,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얘기할 만한 논의구조라는 컨텍스트’ 조차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컨텍스트’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개체와 전체의 문제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는 항상 개체가 개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에서만 개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체라는 것을 전체

known that Ham is very fond of this specific material and structure, and through his works and remarks, he has succeeded in providing us with a very strong impression as an architect. For instance, "When we talk about the city," he once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almost always happens to be context. But when we say context, it actually needs a text to go along with it in the first place. We do not even have a context of logical infrastructure where we could debate over issues of text and context, let alone a context within the urban structure. In this respect, I truly believe it is more sincere primarily to concern ourselves with the issue of context itself. With context, what we are actually talking about is the problem of element and whole. Elements never exist on its own - they become significant within the structure of the whole. What divided the element from the whole and isolated them was the Western idea of rationalism, upon whom scientific thinking based their idea and established an opposing relationship between an element and its whole. The only way an element could be 'right,' in this narrow respect, was to break away, become independent from the whole." Here, Ham is substituting

하고 분절시켜서 단절화시킨 것이 소위 서양의 합리주의이고, 그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사상에 의해서 부분과 전체는 항상 대립적이고 개체가 전체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식으로 안목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라고 말 할 때의 함인선은 컨텍스트의 문제를 아예 ‘시간’이라는 문제로 치환해서 본다. 그리고 거기에서 철골이 가지는 한시성이 나오고,

“구조가 타당한 이유가 한 두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건축미학적인 입장의 문제죠. ‘장식 자체는 비도덕적이다’ ‘정직한 구조가 미적으로도 아름답다’ 이런 미학적인 입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상황’이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 할 때의 그는 절제를 순수 미학적인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인 합리의 문제로 가져온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해진다.

“제가 설계한 가로 건축물들이 왜 스트러처만 남기고 안을 다 비웠느냐? 그건 이거예요.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물이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혼이 들어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건축물은 자기 자신의 자생력을 가지는게 아니라 건축가의 의지의 표상이 돼버려요....(중략)...그래서 제가 입면을 포기한 겁니다. 입면을 포기하고 시스템을 들여 놓은 겁니다. 그 다

the problem of context with that of time, which in turn provides the temporal limitations of the steel structure. "Structures can be deemed right or just in one or two respects. One concerns the viewpoint of architectural aesthetics, where we often talk of the immortality of decorations or the aesthetical beauty of rational structures. The other would be a field relating to its situation." We should note that when he speaks about these issues, he is relocating the notion of temperance and control from the realm of aesthetics to that of socioeconomy. This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Why does my street buildings rid themselves of their inner content and display their skeletal structures? It all comes to the matter of the architect who considers his work as part of himself. It is a work that is created by the devotion of his soul. But it is exactly this point which strips away the autonomic strength of the work and make them a mere representation of the creator's expressive will. [...] And that is why I have come to let go of the building's surfaces. By giving up the control over their elevations, I could establish a system. And then people ask me

음에 왜 다 흰색만 썼나? 색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가로건축에 관한 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하나의 비평행위를 하는 겁니다. 입면이라는 것이 건축가의 제일 중요한,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겁니다”

다소 인용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길게 건축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건축가의 논리와 작업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교육지책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그의 논리는 다소 비약이 없지 않지만, 그 비약 안에서 지극히 논리적이다. 함인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축의 문법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을 쓰고 있다. 그가 선택한 철골이라는 재료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그 재료를 대하는 그의 논리는 그가 가진 특정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사고는 그의 작업과 무관하다. 그의 건축의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흔히 언행일치를 지고의 선으로 생각해 온 우리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의 작업은 일반적인 철골의 단순한 사용법을 따르고 있고 그 때문에 비난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 부평 순복음 교회에서 그의 논리를 읽어 내기란 지극히 어렵다. 어쩌면 그는 철골의 혐오감을 더 극대화(의도적인지 모르지만—그렇게 읽혀지지는 않는다.) 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 사회, 경제적인 논리에 건축이

why I always choose the color white. It is actually not a choice of white but a refusal to choose any kind of color. When I talk this way about the works in an urban fabric, I am in the process of writing a criticism on them. Most architects consider the envelope of their buildings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part, something that is even as precious as their own life, and this is what I am trying to stand against."

The reason I have quoted his rather lengthy remark is my way to diminish the crack between the logic and reality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Ham, while at points jumping in his logics, is completely following a logic within the process of those leaps. He does not work with a general language of architecture. The choice of steel structure itself is nothing special, but the logic with which he deals with the material is based on his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which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his profession as an architect.

Which is then the very root of his problems. In a cultural atmosphere where consistency of one's speech and deeds is taken as an utmost virtue, Ham and his works, adopting

복무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건축의 방식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재료가 가진 속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재료가 되고자하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함인선은 문화 사회학적 문제를 넘어서, 재료 구조적인 문제에서 철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재료 구조적인 문제란 철골의 일반 디테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서 짚은 이미 앞에서 음악이 구축되는 방식을 통해 누누히 설명해 온 바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함인선의 부평 순복음 교회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축은 보여지는 실재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말해지는 논리가 전부일 수도 없다. 건축의 담론은 논리와 실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면 철저한 과학적 가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가설은 완벽한 가설의 '체계'를 전제한다. 이것이 바로 '종이 건축'도 건축일 수 있는 이유이고, 건축의 문법이 이루어지는 요지이다. 그래서 비평의 대상에는 분명한 문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기존의 문법이든 전혀 새로운 문법이든 간에, 어쨌든 비평의 텍스트는 건축가의 작품과 '사고' 이지, 건축가의 '논리'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함인선은 평키이다. 그러나 평키의 자멸을 과감히 취할 수 없는 지적인 평키이다. 부평 순복음 교회는 그저 철골조 건물이었다.

the basic and generalized use of steel structure and therefore seemingly devoid of the complexity of his remarks, are exposed to various levels of criticism. It is indeed quite difficult to read his logics in the Bupyeong Full Gospel Church - Whether he intended to exaggerate the repulsive feelings for steel structures, we do not know.

Architecture, however, should not be serving and following the logic of society and economy. We should once again think of architectural styles,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and what those materials aspire to become. Is Ham approaching steel in terms of materiality and structure - which of course is not confined to the problems of generalized details of construction, as I mentioned in comparison with the construction of music - or is he still deliberating within the frame of culture and sociology?

Simply said, this work of Ham, the Church itself, cannot be an object of discussion. We should not limit our architectural debates to the built substance. But neither should we only talk of the logic behind his writings and remarks. The discourse on architecture concerns both logic and realized forms, or scientific hypothesis. In the latter case, the hypothesis should

우리가 '건축'이라는 단어에 좀 더 무게를 실는다면 그의 작업은 '건물'이다. 그가 이 말을 받아 들인다면 나는 다시 부평순복음 교회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함인선은 그의 논리를 다시 직조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보고나서 쓸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겠다고 편집자에게 말했다. 그리고나서 현장에 가기 전에 함인선의 최근 작업들을 살폈다. 그리고 부평 순복음 교회를 보고 나서는 싸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말의 성찬마저 귀한 우리 건축 현실에 함인선은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평 순복음 교회의 철골은 마치 함인선의 논리를 위해 실제적인 건축의 조직과는 아무 상관없이 억지스럽게 얹혀있었다. 마치, '나는 철골을 쓴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가 하루빨리 자신이 구축한 철골의 허위의식을 벗어 던지고 정말 철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축의 방식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be supported by a perfect system of thoughts, and it is in this respect that we can consider paper architectures as part of true architectural works. It is also the basis on which architecture establishes its syntax, and it is this syntax of a work t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criticism. The text resulting from the syntax, be it new or existent, is a mixture of the architect's work and thoughts, not simply his logic. Ham's new Church is a simple work of steel structure - more of a 'building' than the so-called 'architecture.' There is no arguing that Ham is an important member of our architectural society, but this work falls short of our expectations. The entangled steel structure of the building was isolated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seemed only to be in service of Ham's logics - which is more of a fallacy he himself has built around his preferred structure. Perhaps next time, he will be able to break away from his confines, and present us with an architectural method that is true to steel structure.